

SF·추리소설 등 원작 영화 잇따라 개봉

‘뫼’ ‘나일강의 죽음’ 9일 개봉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오는 23일
‘경관의 피’ ‘드라이브 마이카’ 등
日 유명 작가 소설도 영화 상영중



오는 9일 개봉하는 애거사 크리스티의 소설 '나일강의 죽음'을 소재로 제작한 동명의 영화.

추리 소설 등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소설이 잇따라 영화화돼 눈길을 끈다.

이번 영화들은 고전적인 서사 장르에서부터 추리 소설, SF까지 장르가 다양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정 장르를 선호하는 관객들은 스크린과 책을 넘나들며 작품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오는 9일 재개봉을 앞둔 '뫼'는 미국의 과학소설 작가였던 프랭크 허버트(1920-1986)의 대하소설이 원작이다. '뫼'는 SF 장르의 팬들에게 '최고의 SF 작품'이라는 평을 받을 만큼 인기를 끌었다. 생존은 물론, 진화 등 인간을 둘러싼 종교와 권력 등을 그린 작품이다. 무엇보다 원작 '뫼'가 SF 문학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네블러상과 휴고상을 동시에 받은 첫 번째 작품이자 SF 장르에서 고전이라는 점이 관심을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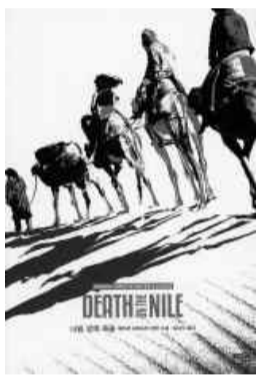
'뫼'는 지난해 2월 국내에서 새로 출간된 바 있다. 6권 시리즈 분량은 4300여 쪽에 달할 만큼 방대한 분량이다. 순위권 밖에 있지만 책은 지난해 11월 영화 개봉 이후 흥행을 계기로 영화 내용과 관련된 책 1권이 베스트셀러 3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9일 개봉하는 영화는 또 있다. 추리소설의 대가이자 전설로 꼽히는 영국 애거사 크리스티(1890-1976)의 동명 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긴 '나일강의 죽음'이 그것. 작가가 1937년에 발표한 소설로 신혼부부를 태운 초호화 여객선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전개된다.

모두가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에르클 포아로는 탐승객들을 심문한다. 그러나 연이어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여객선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인다. 영화는 마지막까지 예기치 못한 반전이 이어지면서 손에 땀을 쥐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미스터리 여왕'으로 불리는 크리스티의 작품답게 이번 영화도 아이디어와 치밀한 구성,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갈등 구조가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의 소설이 오늘날까지도 영화를 비롯해 연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작품이 지난 생명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번 영화에서는 크리스티의 또 다른 대표작 '오리엔트 특급



살인'을 동명 영화로 만들었던 케네스 브래너 감독이 연출과 주연인 에르클 포아로를 맡아 화제가 됐다. 또한 '윈도우맨' 길 가도트가 상속녀 리넷을 연기했으며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로 관객들에게 친숙한 예마 매기가 친구인 리넷에게 약혼자를 빼앗긴 재클린을 연기했다.

오는 23일 개봉하는 장철수 감독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중국 작가 옌렌카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옌렌카는 중국 반체제 작가로 노벨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른 소설가다. 비판정신이 강한 옌렌카는 중국 정부로부터 다수의 책들이 판매금지됐지만 루쉰문학상을 받았다.

영화는 모범사병으로 사단장 사택의 취사병이 된 무광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의 목표는 오로지 아내와 아이를 위해 출세의 길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사단장이 출장을 간 사이 사단장의 젊은 아내 수련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다. 출세의 길에 오르는 것이 지상의 목표인 무광은 신념과 금기된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지난 1월 개봉한 '경관의 피'는 일본 작가 사사기 조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조진웅과 최우식이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됐다. 두 배우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후원금을 받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경찰 박강훈과 그를 감시하는 경찰 최민재를 연기했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위법도 가능하다는 신념과 결과보다는 과정이 정당해야 한다는 다른 신념이 부딪치는 이야기를 그렸다.

추리소설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히가시노 게이고와 일본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도 있다. 현재 상영 중인 일본 영화 '언어가 잠든 집'은 게이고의 소설이 원작이며 '드라이브 마이카'는 하루키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정신의 뿌리 놀재 박상' 출간 박명희 박사·정인서 원장 공저

광주는 예로부터 의로움의 도시로 불려왔다. 광주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광주정신'과 '의로움'이다. 불의에 당당하고 그것에 항거하는 정신이 바로 의로움이며 '광주정신 DNA'다.



광주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놀재 박상(1474-1530)을 빼놓을 수 없다. 박상은 광주의 의로움을 말할 때 등장하는 의향의 대표 인물이다.

전남대 강의를 교수인 박명희 박사와 정인서 광주시 서구문화원장이 함께 펴낸 '광주정신의 뿌리 놀재 박상'은 의로움, 울금, 당당함을 갖춘 박상을 조명한 책이다.

박상은 1474년 광주시 서구 서창동 절골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연산군 후궁의 아버가 횡포를 부리자 그 죄를 추궁했으며 중종반정 이후 외척들이 폐계를 넘어 벼슬을 갖게 되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양부사와 증주목사 시절에 청백리로 추천될 만큼 분이 되는 삶을 살았다.

저자들은 박상에 대해 의리사상을 실천했던 인물로 조명한다. 놀재는 송흥, 최산두, 기준, 임억령 등 당대 호남의 명사들과 교류하면서 고감한 언론을 펼치는 등 호남 사람을 이끌었다.

또한 역사 인식이 있어 남다른 업적을 남겼다. 그는 '동국사략'이라는 책을 편찬했는데,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서 절의사상을 숭상하는 가치관을 반영했다.

박상은 문학적 업적도 뛰어났다. 1164편의 시를 남겼는데 정조는 "박상의 시는 힘차고 아름다워 우리나라 시 가운데 으뜸이다"고 평했다. 특히 그는 시를 통해 당대 부조리한 현실을 지적했으며 이는 광주 정신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한편 저자들은 "박상의 울금은 의로움은 광주정신의 뿌리의 하나로 들 수 있다"며 "그의 흔적을 영상 촬영하여 보존하고 지역 역사교육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독서하브루타 코칭지도사

3급 과정에 도전하세요

광주 서구공공도서관

"독서하브루타 코칭지도사에 도전하세요"
광주 서구공공도서관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독서하브루타 학습코칭지도사 3급 과정을 진행한다.

독서하브루타 학습코칭지도사 과정은 질문과 대화를 통해 토론하는 유대인 전통학습법을 배우고 자녀교육 및 독서논술지도사로 활동가능한 전문지도사를 양성하는 시간으로, 하브루타식 교육의 효과를 이해하고 독서토론법에 대해 깊이있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평소 독서와 토론에 관심있는 지역민에게 추천하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녀교육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자녀들의 독서습관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8일부터 5월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총 12회에 걸쳐 운영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원은 선착순 15명으로 제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공공도서관(062-654-43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랜선으로 떠나는 일본 여행... 14일부터 재팬필름페스티벌

'라쇼몽' 등 13편 영화 무료 감상

제2회 재팬필름페스티벌(JFF)이 오는 14일부터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영화제 기간 '라쇼몽' 등 13편의 일본 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JFF는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일본 영화의 매력을 소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영화제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처음 선보였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랜선으로 떠나는 일본 여행'(ONLINE TRIP TO JAPAN)을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 영화제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의 대표작 '라쇼몽'(1950)부터 코미디 영화 '해피 플라이트'(2008), 애니메이션 '이브의 시간'(2010), 다큐멘터리 '라면의 신'(2013), 이누노 잇신과 히구치 신지 감독의 시대극 '무사 노보오'(2012) 등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영화들을 상영한다.

14일 오후 5시부터 재팬필름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해피 플라이트'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